생물학적 안정성과 심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조골정 연하 임플란트 식립 기법 제안

원치윤치과
원치윤

임플란트의 심미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와 연관된 생물학적 폭경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자연치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2차원적 계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은 자연치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형태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tissue level implant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플란트 fixture와 보철 부분의 결합 부위와 인접하는 연조직에서 emerging profile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으로 인하여 임플란트 식립 수술할 때와 보철 과정에서 삼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임플란트 보철의 모양과 장기적인 결과의 생물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이에, 저자는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삼차원적 분석에 근거를 둔 수술과 보철 과정에서 생물학적 폭경 부위 연조직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분석법은 향후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연구와 임상 응용법에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이 삼차원적 분석 방법이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과 연조직에 적용될 때 그 결과 임플란트 식립 깊이는 현재 관행적인 시술과 달리 다소 깊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개념과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많은 임상적인 결과에서 다소 깊이 심겨진 임플란트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pocket' 형성이라는 잠재적 합병증의 초래에 대한 이론적 염려 때문에 많은 임상의들이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은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생물학적 폭경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 연유한다.

저자는 관련 문헌 고찰과 함께 임플란트에 적용할 새로운 생물학적 폭경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임상적으로 입증할 증례를 제시한다.

임플란트 치의학에서 최근 증가되는 심미적 요구의 부응을 위하여 최선의 임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생물학적 원리에 근거를 둔 치조골정 연하 임플란트 식립 기법이 필요하다.